



당신의 몫입니다.

화해의사역

“화해는 인생활동의 핵심이다.”

폴 샘플리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 Vol. XI

화해는 성서와 기독교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을 나타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즉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그리스어로는 우주)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재창조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를 통해, 그리고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2011년 영성 교재인 <신앙인의 여정>은 화해의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시킬 것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하나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와 같은 훌륭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품성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넘치는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지만 동시에 화해를 방해합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과 우리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 가족, 기관들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두려워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다가 가끔은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노력을 하다가 가끔

은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이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들과 “그들” 모두는 노력을 하다가 가끔은 합당한 이유로 또 그럴지 못한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만 한다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면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선조 벨 헤리스 베넷이 선교사와 여성교사역자에게 전했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는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화해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화해 사역에 뿌리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두려움 없이 여성들의 목회자 안수나 주 40시간 근무제를 위하여 맞섰던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독교여성으로써 어떤 일들과 맞서야 할까요? 우리의 선조들이 폭력적인 제재(린칭), 전족, 그리고 사회 시스템들과 정부들이 세계의 인구 중 일부에게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에 대항하여 싸웠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야 할 학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리스판스를 통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를 위해 어떻게 개인적, 사회적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에 대한 헌신은 어린이들과 환경 또는 경제정의에 관한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화해를 우리 사역의 중심에 놓으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